

#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관한 소비자의 입주의사와 태도

##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Move to a Small Scale Cohousing for Elderly based on Community Friendly Concept

최현정\*                      최병숙\*\*  
Choi, Hyun-Jung          Choi, Byung-Sook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a small scale cohousing for the aged, which provide local communities with the small residential spaces where seniors can feel at home. Questionnaire method is performed, and 193 data were gathered in Jeonju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respondents have a professional job, a owned house size(66-99m<sup>2</sup>,132m<sup>2</sup> or more), and disease or dementia, their intentions to move into a community friendly co-housing for the aged is high. The shortcomings of this housing are perceived low by college or graduate school graduates, but middle or high school graduates do not perceive low them. The respondents with the annuity of less than 4,000,000(KRW)/month perceive them in normal or higher, while those with the annuity of 4,000,000(KRW)/month or more perceive them in low. This annuity will be as a cost criterion to accept to move in this housing.

Keywords : Elderly Cohousing, Small Scale Elderly Cohousing with Concept of Community Friendly for the Aged,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Move

주요어 : 노인공동주거,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주거, 소비자 입주의사와 태도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증가하지만, 노인들은 안정적인 주택에서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는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다. 입주금과 월 이용료를 고가로 지불해야 하는 유료노인주거시설과 기초수급자를 위한 무료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은 이러한 현 노인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홀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나, 아픈 경우 노인주거시설이 아닌 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후의 안락하고 편안함 대신 가족으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고 외면 받았다는 서러움을 느끼며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 실정이다. 부모님의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는 해체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대다수 중산층 노인이 가족 도움 없이도 돌봄을 받으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살아온 지역 내에서 소규모 노인 공동주거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돌볼 경우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노인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노인층 증가와 더불어 노인층의 경제력 향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하나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된다.

###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기피하는 기존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누구나 즐거이 입주하고 싶은 새로운 노인공동주거,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sup>1)</sup>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사회 문제화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 및 발전시킨 것임.

\* 정희원(주저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졸업.

\*\* 정희원(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오늘날 사회에서 제시된 노인 주거관련 유형은 흔히 실버타운, 요양시설 및 양로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개념의 노인주거유형,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란 대규모시설

되고 있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향후 노인층 및 현재 노인 연령층을 주요 소비자 대상으로 하여, 첫째, 노후 주거의 한 대안으로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입주의사를 조사 분석하고, 입주의사와 관계되는 변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 분석하고, 태도와 관계되는 변인들을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지 도구작성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용 구성은 선행연구(김명희, 김귀자, 김선수, 서영숙, 2007; 안경은, 2009; 오찬옥, 2005; 최정신, 김대년, 권오정, 2003)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도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2010년 6월 5일부터 2010년 6월 30일에 하였다.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최종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노후대비 및 노인주거시설 입주의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폐쇄형으로 하였으며, 일부 질문의 응답사항에 기타 항목이 제시된 경우 그 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개방형 자유응답도 하도록 병행하였다. 한편, 설문지 내용 중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의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을 파악하였다. Cronbach's  $\alpha=0.75$ 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인정되었다(서의훈, 2006).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래 노인공동주거시설에 관한 수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래 소비자층을 현재 노인이전 세대와 현재 노인세대 모두 가능한 범주로 해석하여, 40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층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 거주자 중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과 재가(在家)의 중간적인 성격의 소규모 노인입소시설로서, 24시간의 보호와 감독을 요하는 10인 이내의 노인들에게 양질의 치료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계획된 가정적인 소규모의 주거시설 및 요양시설의 대안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는 시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가정과 시설 사이 중간적 개념에 위치하는 거주환경의 한 대안으로서, 중증 치매의 전(前) 단계에 걸쳐 노인의 거처로서 돌봄(care)의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나, 그 중 무응답이나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의 기술적인 통계 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특성을 파악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에서 직업은 전문직 및 판매 서비스업, 주부 및 무직의 비율이 34.8%이고 농축산업 응답자의 비율이 5.7%임을 볼 때 응답자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월 소득의 경우, 2010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72만 9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응답자의 소득 분포가 200만원~400만원(47.6%)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응답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는 일반적인 도시소비자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및 주거 특성

구 분	빈도(%)	계
성별	남자	84(44.4)
	여자	105(55.6)
연령	50세 이하	36(18.8)
	51세 ~ 60세	99(51.9)
	61세 이상	56(29.3)
학력	중학교 졸업	34(17.8)
	고등학교 졸업	88(46.1)
	대학교 졸업	46(24.1)
	대학원 이상	23(12.0)
직업	전업주부, 무직, 기타	63(34.8)
	판매 및 서비스업	46(23.8)
	전문직, 공무원, 회사원	69(35.7)
	농축산업 및 노무직	11( 5.7)
월소득	200만원 미만	70(37.1)
	200만원 ~ 400만원 미만	90(47.6)
	400만 원 이상	29(15.3)
주택 유형	단독주택	81(42.8)
	공동주택	108(57.2)
소유 형태	자 가	166(87.4)
	임대 및 기타	24(12.6)
거주 기간	10년 이하	89(47.1)
	11년 ~ 20년	65(33.3)
	21년 이상	37(19.6)
주택 규모	20평 이하	25(13.4)
	20평 초과 30평 이하	110(58.8)
	30평 초과 40평 이하	27(14.4)
	40평 초과	25(13.4)

#### 2) 주거특성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은 42.8%인 81명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57.1%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

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87.4%인 166명이었으며, 임대 혹은 친인척 집에 기거하는 기타의 경우가 12.7%인 24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가 비율이 높게 파악되었다. 이는 표 1에서 50대 이후 안정기의 연령층이 많음으로 인해 자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현재 주택에 살았던 거주기간은 평균 14년이었으며, 그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 거주자 47.1%인 89명, 11년~20년 거주한 경우가 34.3%인 65명, 2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19.5%인 37명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역시 안정기의 연령층 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이 높음에 따라 현재 집에 10년을 넘게 거주한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노후주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장년층 이상인 응답자들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2%인 14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후에 관한 준비 중 건강(66.0%), 경제(58.0%), 주거(55.5%) 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준비는 58.0%의 응답자가 '잘함' 혹은 '매우 잘함'이라고 했으며, 건강관리는 66.0%가 잘하고 있거나 매우 잘하고 있으며,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를 주거에 대한 준비도 55.5% 이상이 잘하고 있거나 매우 잘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는 노후를 준비하면서 주거를 중요시 생각하므로, 노후의 주거 선택에 관한 응답자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새로운 노인주거 유형에 대한 관심까지 포함하여 노후의 주거선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기존의 실버타운, 요양시설, 양로원은 들어보거나 자각한 바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관심여부는 평균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새로운 개념,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들어본 경험은 57.5%였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실버타운, 요양시설, 양로원에 비해 높은 49.2%였다. 노인 주거관련 유형을 들어본 경험대비 관심을 해석해보면, 새로운 개념의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상대적으로 들어본 경험 57.2% 중 관심이 49.2%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에게 일반적 상황에서 질병노인은 어느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한 결과, 노인성 질병이 생기면 93.3%가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픈 경우 노후 주거로써 현재 집보다 노인 전문시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요양시설과 같은 기존 노인 시설은 들어는 보았으나 관심이 낮은 점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 즉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 전문 시설은 질병이 있는 노인의 주거시설로 그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응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치매, 중풍에 걸렸을 때 어느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는지 파악해 본 결과, 집을 떠나 노인시설(75명, 39.1%)이나 새로운 형태의 노인 공동주거(86명, 44.8%)에서 생활하겠다는 경우가 8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인

이 아프면 집에서 보내는 것이 좋다가 6.7%(13명)인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픈 경우 집에는 보내는 것이 좋다는 16.1%(31명)로 차이가 있어 응답자들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공동주거는 44.8%인 86명이 선택하였고, 현재 노인시설은 39.1%인 75명이 선택하였다. 이는 현재 노인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 주거 입주의식

### 1) 입주의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시설 입주의사를 파악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79.2%인 152명이었으며,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20.8%인 40명으로 나타났다. 입주를 원할 경우 그 비용을 파악한 결과, 매월 평균 67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주 시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서는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69.3%인 133명, 배우자가 결정한다는 경우가 20.8%인 40명, 자녀가 결정한다는 경우가 7.3%인 14명, 기타 2.6%인 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의 노인공동주거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상황에 따른 지역친화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입주하겠다고 61.5%인 115명, 가족의 부양여지가 없을 때가 14.4%인 27명, 가족들의 부양여건이 안될 때가 23.0%인 4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스스로 필요시 노인공동주거시설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고령화, 부부 및 건강 상황에 따라 소규모 노인주거시설의 입주의사를 파악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입주선호 상황

구분	내용	빈도(%)	합계
나이가 많을 때	부부가 모두 노환이 없을 때	52(27.7)	80(42.6)
	부부 중 한 명 사망했을 때	28(14.9)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 사망했을 때	22(11.7)	91(48.4)
	부부 중 한 명이 중풍, 치매 등에 걸렸을 때	46(24.5)	
	부부 모두 중풍, 치매 등에 걸렸을 때	23(12.2)	
혼자일 때	홀로 남았을 때	17( 9.0)	17( 9.0)

### 2) 입주의사와 관계 변인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을 설명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거특성의 변인에 따라 입주의사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후의 가족상황 및 부부상황, 노후의 경제상황 즉, 연금여부 및 월 연금액에 따라 입주의사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직업, 주택규모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 주거시설의 입주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 및 부부상

황에 따른 지역친화형 소규모 입주 의사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 주거시설 입주의사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 구분은 주부 은퇴자, 판매 서비스직, 전문직, 농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문직이 31.6%, 주부 및 은퇴자집단은 27.8% 순으로 입주의사를 표명하였고, 농업직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택규모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 공동주거 시설 입주의사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택규모에 따른 입주의사에서 20평 초과~30평 이하의 규모집단이 전체 비율 57%로 입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0평 초과가 19.8%, 20평 이하가 10.8%이고, 30평 초과~40평 이하가 가장 낮은 입주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상황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 주거시설 입주의사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가족상황에 따른 입주의사에서는 가족 부양의지가 없을 때, 가족들의 부양 여건이 안 될 때, 자발적인 입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자발적으로 입주하는 조건이 53.8%가 가장 높은 입주의사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부상황과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 입주의사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입주 시 부부상황이 나이가 많이 들 때, 한사람 사망하고 아플 때, 한사람 사망하고 홀로 남을 때, 둘 중 한명 치매중풍 걸릴 때, 부부 모두 치매 중풍 걸릴 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중 나이가 많이 들 때가, 25%로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치매 중풍 걸릴 때가 20.9%로 나타났고, 한사람 사망, 홀로 남을 때가 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4.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 1) 긍정적·부정적 태도

지역사회에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가 도입되는 데 대한 의견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태도를 파악하였다<표 3>.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응답자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게 의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지선정의 어려움, 시설 선택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3.55점) '지역사회의 이해가 부족하여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이다'(3.28점),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선택이 어려울 것이다'(3.28점), '이용료에 비해 서비스 혜택이 적을 것이다'(3.18점)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3.17점), '가족들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3.05점), 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2.95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정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인간적인 대우받으며 생활한다' (2.9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노인

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면이지만 실제 응답자는 이를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와 심리적 안정,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고독감 해소, 잔존능력유지, 치매진진 방지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인간적인 대우받으며 생활 한다' (2.96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면이지만 실제 응답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와 심리적 안정,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고독감 해소, 잔존능력유지, 치매진진 방지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구분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태도	평균 (SD)	
부정적 측면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3.55 (1.022)	
	지역사회의 이해가 부족하여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이다.	3.28 (0.928)	
	가족들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3.05 (1.751)	
	전문 인력의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2.95 (1.050)	
	지불하는 이용료에 비해서 서비스의 혜택이 적을 것이다.	3.18 (0.995)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주거에 대한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선택이 어려울 것이다.	3.28 (0.966)	
	공동생활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3.17 (0.955)	
	소계 평균(SD)	3.21 (1.095)	
	긍정적 측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2.96 (0.929)
		적은 수의 노인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함으로써 치매의 진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27 (0.969)
집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68 (0.981)	
동거노인이 있어 고독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71 (0.898)	
노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재활치료를 받음으로써 잔존능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70 (0.927)	
부양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3.74 (0.822)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 될 수 있을 것이다.		3.76 (0.907)	
소계 평균(SD)		3.55 (0.919)	

##### 2) 긍정적·부정적 태도와 관계 변인

긍정·부정 의식이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직업)과 거주특성(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래 노인공동주거 입주를 의식하여 미래 소득의 형태로 연금에 따라 긍정·부정 의식의 차이도 파

악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력, 거주기간, 연금여부 및 월 연금액에 따라 의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5, 6, 7, 8>.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현재 월 소득, 직업은 의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결과에서와 같이 학력변수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의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F=2.768, df=3, P<.05). 중졸(3.20점)과 고졸(3.32점)에 비해 대졸(3.04점)과 대학원졸(3.09점) 응답자들이 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낮은 점수로 지각하였다.

표 4. 학력에 따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력	부정적 태도의 평균(SD)	df	F값	Duncan's
중졸	3.20(0.61646)	3	2.768*	A
고졸	3.32(0.51905)			A
대졸	3.04(0.69547)			A
대학원이상	3.09(0.55452)			A

\*P<.05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면을 의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F=3.589, df=2, P<.05) <표 5>. 현재의 집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면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하인 경우 긍정적 태도의 점수는 3.65점, 11년~20년 이하 거주한 경우는 3.56점, 20년 초과한 경우는 3.28점으로 거주기간이 긴 집단이 시설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점수가 약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오래 산 응답자일수록 노인공동주거시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

거주기간	평균(SD)	df	F값
10년 이하	3.17(0.61501)	2	3.589*
11년 ~ 20년	3.30(0.52575)		
20년 초과	3.09(0.64819)		

한편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과 관련하여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은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특히 본인이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3.04점)는 연금을 받는 경우(3.24점)보다 노인공동주거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t=2.211, df=63.749, P<.05). 그리고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3.70)는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3.45)보다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t=2.029, df=88.507, P<.05).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응답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인 측면은 높게, 부정

적인 측면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노후의 연금여부는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의식결정에 관련된 변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6. 본인 및 배우자연금에 따른 지역 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태도	노후 연금	N	평균 (SD)	t값	df	
본인 연금	부정적 태도	있다	153	3.24(0.61)	2.211*	63.75
	없다	34	3.04(0.45)			
배우자 연금	긍정적 태도	예	153	3.59(0.60)	1.204*	37.15
	아니오	34	3.35(1.14)			
배우자 연금	부정적 태도	있다	103	3.25(0.56)	1.386	135.99
	없다	67	3.12(0.59)			
배우자 연금	긍정적 태도	예	103	3.70(0.49)	2.029*	88.51
	아니오	66	3.45(0.93)			

\*P<.05

표 7. 본인 연금액에 따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태도

태도	연금액	N	평균 (SD)	df	F값	Duncan's
부정적 태도	100만원미만	57	3.32(0.47)	4	4.806*	B
	100-200만원미만	47	3.37(0.67)			B
	200-300만원미만	40	3.08(0.67)			B
	300-400만원미만	6	3.10(0.49)			B
	400-500만원미만	2	2.14(0.00)			A
	-500만원미만	2	2.14(0.00)			
	합계	152	3.25(0.61)			
	긍정적 태도	100만원미만	58			3.16(0.41)
100-200만원미만		46	3.62(0.56)			
200-300만원미만		40	3.45(0.85)			
300-400만원미만		6	3.97(0.31)			
400-500만원미만		2	4.00(0.20)			
-500만원미만		2	4.00(0.20)			
합계		152	3.59(0.60)			

\*P<.05

본인의 연금여부에서 나아가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의식과 연금액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 본인 연금 및 배우자 연금 모두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7, 8>. 본인 연금 및 배우자 연금 모두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월 연금액이 400만원 미만에서는 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보통이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400만원 이

표 8. 배우자 연금액에 따른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태도

태도	연금액	N	평균 (SD)	df	F값	Duncan's			
부 정 적 태 도	100만원미만	52	3.32 (0.50)	4	4.595*	B			
	100-200만원미만	32	3.34 (0.61)			B			
	200-300만원미만	15	2.97 (0.45)			B			
	300-400만원미만	3	2.86 (0.52)			B			
	400-500만원미만	2	2.14 (0.00)			A			
	합계	104	3.24 (0.56)						
	긍 정 적 태 도	100만원미만	52			3.66 (0.38)	4	.768	-
		100-200만원미만	32			3.72 (0.46)			
		200-300만원미만	15			3.66 (0.82)			
300-400만원미만		3	4.10 (0.08)						
400-500만원미만		2	4.00 (0.20)						
합계		104	3.70 (0.49)						

\*P<.05

상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그렇지 않다’ 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설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긍정적 측면은 본인 및 배우자 연금액에 차이 없이 3.00점 이상의 보통 이상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때, 400만원 연금액이 노인공동주거시설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지역친화형 소규모 노인공동주거는 이미 ‘그룹홈’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형태로 실제 운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층 노인들의 선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20-30평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와 같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을 위한 공동주거가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소득과 관련한 노후 연금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구주영 (2007). 독거노인의 그룹홈 거주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서울.

2. 김명희·김귀자·김선수·서영숙 (2007). 중풍노인 주거공간 간의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사용자 감응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32(3), 101-114.

3. 서의훈 (2006). **SPSS 통계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4. 안경운(2009). 노인그룹홈의 운영과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전주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41~855

5. 오찬옥 (2005). 그룹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9(3), 59~69.

6. 이희진·이연숙·박혜연·임채숙 (2008). 단독주택지역 거주노인의 노인집합주거대안에 관한 반응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08~111.

7. 최정신 (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서울: 집문당.

8. 최정신·김대년·권오정 (2003).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의 개발과 관련 정책**. 서울: 집문당

9. 홍형옥·지은영(2004).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서비스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1~12.